

“긋은 일 했다고 상 주는 절 봤어요?”

서울 도선사, 허드렛일 봉사·구참 불자들 표창

“불사금은 많이 못내지만 지극한 신심으로 오랫동안 절에 다니신 도사님들에게 상을 주면 불자들은 환희심이 나죠.”

서울 우이동의 도선사(주지 혜자)는 긋은일을 도맡아 봉사하거나 오랫동안 절에 다니신 신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불사금을 많이 낸 신자나 신도회 간부를 맡은 신자들이 우대 받는 풍토가 자리 잡은 한국불교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다.

혜자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2003년 12월부터 주어진 이 상의 명칭은 ‘포대화상 심선업상’과 ‘육바라밀상’. 심선업상은 공양간 등에서 허드렛일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찰 울력에 묵묵히 동참해 온 불자에게 전하는 감사의 표시고, 육바라밀상은 포대화상 봉안을 기념해 20년 이상 꾸준한 도선사에 다니는 ‘말뚝박이’ 불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8월 19일 우란분절 시상식 때 상을 받은 불자들을 살펴보면, 후원배식 5년, 발농사 4년, 대웅전 관리 5년 등 불자 열 명과 20년 넘게 도선사를 오르내린 여섯 명이다. 육바라밀상

을 받은 신자들은 평균연령이 77세에 달하는 이들로, 도선사에서 출가 득도한 주지 혜자 스님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들이다.

1년에 세 차례 시상되는 심선업상과 육바라밀상은 도선사에서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낸다. 두 상은 불자들에게 동기를 부여, 보다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

후원 배식·사찰 울력 등 다양

20년 넘는 고참도 여섯명이나

불사금 낸 신도 우대 풍조 경조

불자는 신심·사찰은 이미지 ‘UP’

고 있다. 심지어 기도 때에 이름만 올리고 참석하지 않거나 사찰내 봉사를 꺼리던 신도들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지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가 매우 높아진 점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대다수의 불자들



서울 도선사는 ‘말뚝박이’ 신도와 긋은 일 도맡아 하는 불자들에게 상을 주어 신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사진은 올 우란분절을 맞아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신도들에게 육바라밀상을 주는 모습.

을 대우해주는 스님에 대한 고마움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시상식 때는 내가 상을 받는 것처럼 눈물이 났다”고 도선사 불자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인다.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원융살림을 실현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다. 도선사 불자들은 주지 혜자 스님을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등 ‘화합의 도선사’

를 실현하고 있다.

혜자 스님은 “심선업상과 육바라밀상은 스님들의 시각에서는 작은 상이라 할 수 있지만 불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 상”이라며 “상을 통해 불자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줌으로써 ‘신심 나는 신행’을 펼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새로운 공불련 위해 ‘출발’

관세청·30개 세관 11월 12일 연합회 창립 서울시·구청 공무원불자들도 활성화 동참

성윤갑 관세청장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으로 추대한 관세청 공무원불자들이 공불련 활성화를 앞서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관세청은 11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광수사에서 분청을 비롯해 6개 본부세관 등 전국 30개 세관의 불자회를 하나로 묶는 관세청불자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그동안 분청과 본부세관 불자회가 개별적으로 활동해온 관세청이 연합회를 결성한 데에는 성윤갑 관세청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성윤갑 회장은 최근 전홍욱 관세청 감사관을 사무총장으로 한 제4기 사무국 집행부를 구성한데 이어 관세청불자연합회를 결성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새로운 공불련’을 위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불자연합회는 4기 성윤갑 회장을 이끌어나가는 전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결성될 ‘공불련 활성화 기획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공불련의

비전과 변화지침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서울시 공무원불자들도 가담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청과 은평구청, 서초구청 등 3개 구청 불자모임은 서울특별시청을 비롯해 25개 구청의 공무원불자회가 참여하는 서울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일부 구청불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기관과 대구·대전광역시청 등이 지역연대를 통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어, 서울시 공무원불자들의 연대 움직임은 공불련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3개 구청불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른 구청불자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수원 서호노인복지회관 무의탁노인들은 수원운불련 초청으로 화성 신홍사 등지를 참배했다.

수원 운불련, 무의탁노인 초청 호도관광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수원지역회(회장 박성갑)는 10월 27일 수원 서호노인복지회관 무의탁노인을 초청, ‘가을맞이 자연체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는 소숙차량 30여대를 이용해 화성 신홍사 참배에 이어 제부도 여행, 해수 목욕 등으로 진행됐다. 운전기 사불자들의 호도관광에 초청된 50여 무

의탁노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성갑 수원지역회 회장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정을 나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김명화

고려대의료원 불자회 안암지부장



오랫동안 불자회 창립을 서원했던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료인불자들은 올 7월 그 뜻을 이뤘다.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안산병원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가 된 결과였다. 고려대의료원 불자회(회장 김우주)는 창립에 만족하지 않고 병원법당을 개원하겠다는 또 다른 서원을 세우면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김명화 고려대의료원 불자회 안암지부장(48·안암병원 신생아실 수간호사)

안암·구로·안산병원 잇는 가교역할

은 안암병원 불자들을

모집하는 등 구로병원의 김우주

감염내과의와 함께 불자회 결성을 일궈낸 장본인이다. 고려대의료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 지현 스님의 도움은 큰 힘이 됐다. 김명화 안암지부장은 안암병원 불자모임을 이끌어가면서도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자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이끄는 만년니이기도 하다.

“지현 스님을 비롯해 창립법회를 하기까지 주변에서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불자회를 결성하고 나니 할 일이 너무나 많

다. 그래서 창립법회도 ‘병원법당 개원 추진법회’로 이름을 붙였어요. 내년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에 먼저 법당 문을 열고, 안산병원에 중추 공사가 시행되면 법당을 개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병원장님들에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려대의료원 불자회는 병원내 환자를 위한 활동과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안암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상락원과 안산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는 이미 성사단계다. 90여 회원들이 활발한 신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김명화 안암지부장의 어깨가 무겁다.

박봉영 기자

네요.” 고려대 간호학과 재학시절의 대 불교학생회와 고려대 불교학생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김명화와 안암지부장. 졸업 후 고려대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도 불자회를 만들지 못해 오랫동안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었다. 불자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법당을 들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

다. “이젠 병원 법당을 개원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창립법회도 ‘병원법당 개원 추진법회’로 이름을 붙였어요. 내년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에 먼저 법당 문을 열고, 안산병원에 중추 공사가 시행되면 법당을 개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병원장님들에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려대의료원 불자회는 병원내 환자를 위한 활동과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안암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상락원과 안산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는 이미 성사단계다. 90여 회원들이 활발한 신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김명화 안암지부장의 어깨가 무겁다.

박봉영 기자

충남경찰 화합의 장 펼친다

11월 5일, 공주 식물박물관서

전국 최초로 모든 경찰서에 불교회를 창립해 화제를 모았던 충남 경찰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진다.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이기병)와 산하 20개 경찰서 불교회는 11월 5일 공주 식물박물관에서 ‘충남경찰청 불교회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연다.

경승단 충남지단(단장 장곡)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잔치는 충남지역 경승 스님, 경찰불자와 가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법회와 화합을 다

지는 게임, 회원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 된다.

충남지역 경찰불자들은 앞으로 모든 경찰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승을 해 족, 실질적으로 활동할 스님들을 위촉하는 한편, 경찰불교회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기병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장은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에 불교회를 창립한 성과를 지역민들에게 회향하고 경찰포교 활성화를 서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육임 활용도서 · CD 프로그램 大 할인 판매

육임나라에서는 아래 육임 활용도서 · CD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각자 필요한 육임 활용도서 및 CD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 1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70만원
- 2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40만원
- 3K 효사활인천역집 + 월영도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7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III 업그레이드 판 CD 입니다)
- 4K 효사숙사주 + 육임시보단정 + 피타고라스 대점술 50만원
- 5K 육임대계전서 (전60권) 170만원

월영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모두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위 각 프로그램 보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내용 저장 기능
- 사주기동으로 출생 년월일시 찾는 기능
- 사주기동으로 회원 검색기
- 월영도 지성법(도표) 활용법
- 효사숙 사주 프로그램(성명학 외 17종) 정착

※ 위 CD프로그램은 직접방문하여 설치해 드리고 활용방법을 익숙하게 알려드립니다.

육임활용서

- 육임래정비법 (전1권) 15만원
- 육임래정비법휴대용 (전6권) 20만원
- 도사에게 물어봐 (전1권) 1만5천원
- 육임래정비법핵심판 (최정용 전12권) 50만원
- 육임래정비법핵심판 (휴대용 전12권) 70만원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전12권) 100만원
- 육임신수비결 (전1권) 15만원
- 각일각시택일출생비법 (전1권) 5만원

육임학습도서

- 육임강의록 (전12권) 20만원
- 육임비요형이상법 (전1권) 5만원
- 육임운명판단법 (전1권) 5만원
- 육임세밀정단법 (전1권) 5만원
- 육임강의비디오 CD (전63개) 50만원

■ 주문전화 02)993-8680 (담당:이명옥)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입금 통보 후 다음날 한진택배로 도착 됩니다.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